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1. 6. 1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수출입銀무역보험公 통합추진” 보도에 대한 해명

1. 기사 요지 (‘11. 6. 1, 파이낸셜뉴스)

- 금융당국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합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
 - 정책금융기관간 통합의 전제조건이던 부처간 합의도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·기획재정부 입장

- 지식경제부, 기획재정부는 수은과 무보간 통합에 대해 검토하거나 관련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안병화 과장(2110-5331)
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조원경 과장(2150-7610)
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김정기 사무관(2110-5334)
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김영임 사무관(2150-7613)